

대혼란의 6월 모의평가 국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국어 강사 설승환

1. 총평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 변화 또는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예전부터 6월 모의평가는 신유형이 많이 나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시험이었다. 최근 6월 모의평가들이 무난하게 출제되었을 뿐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실험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1교시부터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어 선생님들도 꽤 충격을 많이 받을 정도였다. 영역별 출제경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통합국어'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 시험이었으며, 평가원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흔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시험이었다.

→ 신유형이 많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존 기출문제들의 원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항 배치 및 지문의 형태와 길이가 달라졌을 뿐,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은 기존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했다.

- 난이도 : 중상

→ 오랜만에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 또는 90점을 넘지 못할 듯한 시험이었다. 자신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웠기 때문에, 원점수가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어디까지나 수능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싸움이다. 6월, 9월 모의평가가 엄청 쉬웠다가 수능이 이러한 유형과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라. 차라리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이렇게 나온 것이 다행이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험이라고 생각하자.

2. 영역별 출제경향

1) 화법/작문

(1) 난이도 : 하

→ 화법/작문은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화법/작문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성급하게 풀다가 실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수도 실력, 화법/작문을 빨리 풀어야 뒤에 있는 독서, 문학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자. 화법/작문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국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착함'과 '차분함'이다.

(2) 지문 소재

문항	영역	내 용
[1~2]	화법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강연
[3~5]	화법	독서 모둠 과제 수행 방법에 관한 토의
[6~7]	작문	'향토 문화원 해설 도우미'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 소개서 작성 상황
[8~10]	작문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학교 신문 기사 작성 상황

(3) 특징

① 화법/작문의 경계 약화

2016학년도 수능 국어 B형의 작문 [6~8] 지문에 대화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 '화법과 작문'의 통합 양상이 보였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작문 [6~7] 지문에도 대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화법/작문의 경계를 명확하게 짓지 않으려는 교육과정의 양상이 점점 지문에 드러나고 있다.

② '고쳐쓰기' 문항의 문법화

작문의 '고쳐쓰기' 문항이 원래는 통일성/일관성, 접속어, 문장의 순서, 문단 나누기, 어휘, 어법상 틀린 표현 등 선택지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의 10번 문항에서는 다섯 개의 선택지가 모두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2) 문법

(1) 난이도 : 상

→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대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법 세트 중에서, 평균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 <보기>만 보고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수험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문제들이었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국어는 '교과형 수능'을 표방하는 시험이다. 기본 개념은 당연히 충실하게 익혀야 한다.

(2) 출제 요소

문항	영역	내 용
[11~12]	국어사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용언의 활용에 대한 탐구 자료
[13]	음운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이해
[14]	문장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탐구
[15]	단어	합성어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3) 특징

① '독서'와 '문법'의 통합,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통합

화법/작문까지 풀었을 때는 이번 6월 모의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11~12]번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아 당황스러워 했을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중세국어/국어사 문제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보란 듯이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용언의 규칙/불규칙 활용'에 대한 내용을 비문학화하여 지문으로 구성한 다음 2문제를 출제하였다. 11번 문제는 풀 만했지만, 12번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최고난도 문제였다.

사실 이번의 [11~12]번 유형은 이전 교육과정과 변경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험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6)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

국어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국어 변천의 양상을 탐구하고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국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차자(借字) 표기와 한글 표기의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에 걸친 음운과 표기, 단어와 문장의 주요 변천 양상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국어 자료는 역사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 2011 개정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 일부 -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중세국어/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이 단독 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자료의 탐구'라는 대단원 하에 중세국어/국어사 내용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11~12]번과 같은 유형은 현재의 교육과정에 아주 적합한 지문/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교과형 수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 이와 같은 구성은 2013학년도 이전에 독서 '언어 지문'이 출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완벽한 신유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국어문법의 고난도 주제들이 친절한 설명 없이 다수 등장

[11~12]번의 국어사+규칙/불규칙 활용, [13]번의 음운 변동, [14]번의 관형절을 안은문장+문장성분, [15]번의 비통사적 합성어 등은 모두 국어 문법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보기>에 주어지는 설명 없이 그대로 개념이 노출되어 평상시에 문법 학습을 제대로 또는 똑바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법 문제를 풀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5문제 모두 정답률이 60% 이하로 추정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3) 독서

(1) 난이도 : 중상(지문의 난이도는 상)

→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독서 지문은 3지문이 출제되었는데, 지문이 길면서도 정보량이 꽤 많아서 독해할 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작년의 시험을 기준으로 할 때, 국어 B형의 중심이었던 추론성 지문보다는 국어 A형의 중심이었던 정보과다형 지문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지문 속의 주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문제를 풀었는지'가 가장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문 소재

문항	영역	내 용
[16~19]	기술	인공 신경망 기술 → 비연계
[20~24]	인문	유비 논증의 원리 → 문단 연계(수능특강 p. 90)
[28~33]	과학+예술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음악학적 설명 → 문장 연계(수능특강 p. 250)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인문 지문 일부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나 방법을 개발할 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동물과 인간이 중요한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물에게 효과적인 신약이나 치료법은 인간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을 ‘유비 논증’이라고 한다. 유비 논증의 표준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인문 지문 연계[EBS 수능특강 독서 p. 90] -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과학+예술 지문 일부 -

(중략)

이어진다. 반면에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이론가인 한슬리크는 정서가 대상, 믿음, 판단 등의 인지적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인지주의적 정서관에 기반하여, 음악은 이러한 인지적 요소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정서를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음악 경험에서 정서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삶으로부터 음악을 분리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결국 양쪽 입장은 모두 반대 입장에서 중시하는 음악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 과학+예술 지문 연계[EBS 수능특강 독서 p. 250] -

(3) 특징

① 과학 지문과 예술 지문의 통합으로, 수능 역사상 최초로 한 바닥을 차지하는 비문학 지문 등장

비문학 소재끼리도 통합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긴 지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아마 이와 같은 지문을 읽으면서 연습한 적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제일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거나 긴 지문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지만, 침착하게만 대응하면 정답은 명확하게 고를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다. 6월 모의평가에 이와 같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도 한 바닥 정도를 차지하는 긴 지문이 나올 수 있다.

② '기술' 지문의 등장

국어 A형과 국어 B형이 통합되면서 인문/사회/과학/예술/기술의 다섯 소재가 어떻게 출제될지 궁금증을 유발하였는데, 일단 기술 지문이 등장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 출제된 '기술' 지문은, 평가원에서 밝히기를 "최근 세계적인 화제가 된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소재를 출제하였다."고 하였다. 즉, 지문을 구성할 때 최신 시사 이슈를 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첫 지문치고는 꽤 난이도가 있어서 이 지문을 독해할 때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과 학생들은 기술 지문을 대비한 적이 많이 없으므로, 기술 지문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③ 함정 선택지의 다수 등장 → 세밀한 독해 요구

[19]번 문항의 ④번 선택지, [23]번 문항, [29]번의 ①번 선택지, [31]번 문항, [32]번 문항은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근거를 놓치기 쉬운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문항들의 오답률이 다소 높은 편인데, 기출문제가 많이 쌓이면서 학생들의 독해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편이므로, 다소 근거가 껄껄한 선택지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경향이기도 하다(작년 9월 모의평가에서 '스타이컨의 회화주의 사진' 지문의 3점짜리 추론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도 실력이다.

④ 문법 문제가 비문학 세트에서 등장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단연 문법의 강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문제가 비문학 지문 안의 33번 문항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법 문제는 [11~15]번의 다섯 문제와 '작문'의 고쳐쓰기 10번 문항, 그리고 33번 문항까지 총 7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문학

(1) 난이도 : 중

→ 기존의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문학 문제들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문학 문제 풀이는 '내용 일치에 근거한 100% 헛소리 찾기/제외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시험이었다.

(2) 지문 소재

문항	영역	내 용
[25~27]	고전시가 (고려가요)	'동동' + '가시리' ※ '고려가요'에 대한 글 포함 → '동동'은 연계(수능특강 p. 46)
[34~38]	갈래복합 (현대시+수필)	[현대시] 박두진의 '향현' + [현대시]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 [수필] 박이문의 '눈' → '우리가 물이 되어'는 연계(수능특강 p. 133)
[39~42]	현대소설	염상섭의 '삼대' → 부분 연계(수능특강 p. 205)
[43~45]	고전소설	조위한의 '최척전' → 제목 연계(수능특강 p. 15)

(나)

덕(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복(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윳고지여
 녹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시가 '동동' -

나	정월 냇물은 아으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리가운데 나곤 몸이어 홀로 살아가는구나 /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 보름에 아으 높이 켜 등불 같구나 ㉞만인 비취실 모습이시도다 / 아으 동동다리	〈이월령〉
	㉠삼월 지나며 핀 아으 만춘(滿春)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도다 / 아으 동동다리	〈삼월령〉

- 고전시가 지문 연계[EBS 수능특강 문학 p.46]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시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

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현대시 지문 연계[EBS 수능특강 문학 p.133] -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
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A] 일문일죽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뉘어
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소설 염상섭의 ‘삼대’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한 짚)에 50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했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 일족에 끼려 한즉 근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물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난봉자식이 난봉 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님으로서는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랐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 현대소설 지문 연계[EBS 수능특강 문학 p.205] -

(3) 특징

① '독서'와 '문학'의 결합

'고려가요'를 해석할 수 있는 비평 자료를 제시하고, 고려가요 '동동'과 '가시리'를 함께 묶어 출제했다는 점에서 [25~27]번 지문은 완벽한 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유형이며, '독서'와 '문학'도 결국은 '읽기'의 범주 안에 들어가므로 경계를 명확하게 짓지 않으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듯하다. 이와 같은 SET가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통합적으로 출제할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판소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판소리계 소설을 묶어서 출제, 유명한 문학 이론가의 비평론과 현대소설을 묶어서 출제).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용일치'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고전시가' 고어 표기 그대로 노출

국어 A형과 국어 B형이 통합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고전시가가 현대어 풀이로 출제되느냐 고어 표기로 출제되느냐였을 것이다. 사실 올해 초반에는, 예전에 문/이과 통합으로 언어영역이 시행될 때 '관동별곡'을 제외하고는 고전시가가 현대어 풀이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들이 올해도 고전시가가 현대어 풀이로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런데 올해 3월 말에 발표된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서 고전시가 예시문항을 작년 수능 국어 B형에 고어 표기로 출제된 '고공답주인가'로 들면서, 올해 시험들에서 고전시가가 충분히 고어 표기로 출제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그에 따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동동'과 '가시리'가 고어 표기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EBS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시가 작품들과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고전시가 작품들(연시조, 가사)은 따로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

③ <보기>를 통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음.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학 세트 중에서, 미리 그 작품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언급해주는 <보기>는 고전소설 '최척전'의 [45]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해당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많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다 보니,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9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을 살펴봐야 할 듯하다.

④ 작문 문제가 문학 세트에서 등장

영역 간 통합, 경계 허물기가 문학 세트에서도 나타났다. [38]번 문항은 문학 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3. 앞으로의 학습 방향

1) ★★★기출문제 풀이/분석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자.

이번 시험을 치고 나서, '기출 완전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지문이 길어졌으니 답은 릿밋잇이다.', '마달 왜 풀었나?' 등등 기출분석 회의론이 엄청나게 일었다. 정말로 기출분석은 쓸데없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헛공부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신유형의 지문이 쏟아져 나온 바람에 당황스러워 해서 실력 발휘를 못한 것이지,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기출문제들의 원리가 녹아들어간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두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들이었다.

6월 모의평가 문항		유사한 기출문제
문법	[13]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1번
	[15]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9번
독서	[19]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8번
	[23]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5번
	[32]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2번

국어 강의만 해 오는 나도 늘 기출문제와 지문들이 새롭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답이 다 기억나요.', '봤던 것 계속 봐서 지루해요.'라는 말만 한다. 그냥 문제의 답과 형태만 기억나는 것이지, 그 지문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었고, 각 선택지가 왜 맞고 틀렸는지 근거를 따져나가는 과정,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 보는 과정은 100%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여전히 기출문제 분석은 정말 중요하다. 새로운 유형이 쏟아져 나와도 흔들림 없이 원래 기출문제를 학습하던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범함, 침착함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껍데기만 다를 뿐, 속은 같다!

2) 2013학년도 이전의 독서 '언어 지문'을 활용하여 '독서+문법' 통합형에 대비하자.

그렇다고 기출문제만 분석하고 앉아 있을 순 없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들은, 얼마든지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것이 [11~12]번 지문/문제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2013학년도 이전의 독서 '언어 지문' 형태와 꽤 유사하기 때문에, 2005학년도~2013학년도 6월/9월/수능에 출제되었던 '언어 지문'들을 면밀하게 풀어보고 검토/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3) EBS 연계교재 및 LEET/MEET/DEET 주요 지문을 활용하여 긴 지문에 대비하자.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또다른 충격이었던 '한 바닥 지문'.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집중력과 몰입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그에 대한 대비 없이 이번 시험에서 그 긴 지문을 만났으니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한 바닥 지문'은 역시나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들에서는 이와 같이 긴 지문이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대비할 만한 지문이 사실 딱히 없는 편이다.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EBS 수능특강 독서 교재의 지문이 시험지 형태로 편집하면 꽤 긴 편이다. 연계된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연계를 느끼기는 어려우므로 긴 지문을 읽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용도로 EBS 연계교재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다. 둘째, 1~2등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LEET의 언어이해, 의·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인 MEET/DEET의 언어추론 시험지에 있는 주요 지문들만 따로 학습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지문을 선정하기에는 분명 어려울 것이므로, 작년에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김상훈의 'GRIT 강대 고급 국어'라는 교재를 활용해도 괜찮다. 올해 버전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LEET/MEET/DEET에 출제된 지문 중 수능에 근접한 지문들을 잘 선별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문제는 수능과 거리가 먼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문 학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4) 모의고사 연습을 정말 많이 하자.

국어영역은 실력만으로 안정적인 1등급, 100점을 받기가 힘들다. 자신이 얼마나 시험을 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에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지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어는 실력과 함께 태도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낯선 지문/문제를 풀어나가며 자신이 어떤 점이 약한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풀어보지 못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문제 질이 평가원/교육청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설 모의고사도 연습용으로 괜찮다. 우리는 문제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다. 풀어보고 나서 그 문제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해도 되기는 하지만, 풀어보지도 않고 사설 모의고사는 문제 질이 별로니까 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수험생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다. 시간 관리와 배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전모의고사 연습만큼 좋은 것이 없다. 평상시에 틈틈이 해 두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8월부터는 꼭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자.